

# 예산 축소에...스마트 교실서 전자칠판 뺀 세종시 교육청

세종시 교육청이 스마트교실 구축 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첨단 전자칠판을 값싼 단초점 빔프로젝트로 변경, 전자칠판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올 초 교육부가 스마트교실 구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중단한 이후에도 세종시는 자체적으로 신설되는 모든 학교를 스마트학교로 구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일부 특별실에만 설치했던 첨단 전자칠판을 일반 교실에 확대 적용하면서 전자칠판 업계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번 사업 예산 축소에 전자칠판 입찰은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교육부 교부금 환수에 사업 축소 단초점 빔프로젝트 설치기로 업계, 물 건너간 입찰에 초비상

교육부가 세종시 교육청에 교부했던 스마트교실 구축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환수, 세종시 교육청이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최근까지 약 2000여개 교실을 스마트교실화한 데 이어 이달부터 약 240억원의 투입해 나머지 1085개 학급을 첨단 전자칠판과 전자교탁을 갖춘 스마트교실로 구축할 계획이었다.

전자칠판과 전자교탁 구입 예산은 약 100억원 규모로 예상됐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에서 10월에 집행할 예정이던 스마트교실 구축사업 예산을 상당 부분 환수, 사업계획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전자칠판은 저가 제품인 단초점 빔프로젝트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돈원 전자칠판협회 회장은 "당초 이달 집행할 예정이었던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전자칠판 조달 시장만 사라지게 됐다"며 "스마트교실에 전자칠판 대신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는 것이 초기 투자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 향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하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아쉬워했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 교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 올리는 물론이고 내년도 교육청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의혹도 꼬리를 몰고 이어지고 있다. 전자칠판 업계 관계자는 "교육청별로 100억원에서 150억원씩 환수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삭감한 예산이 전국적으로 수조원에 이른다든 얘기도 들린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 수준이지만 더이상 학교 시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부금을 환수한 것은 아니고 교육청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모든 사업을 축소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스마트스쿨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시 교육청은 당초 약 240억원 규모로 계획했던 스마트교실 구축사업을 약 200억원 규모 사업으로 지속한다. 태블릿PC의 경우 실제 사용빈도와 필요수량을 고려해 1인당 1대에서 4인당 1대로 줄였고, 무선 AP 설치 수량도 기존 교실당 1.5대에서 1대로 줄였다. 전자교탁은 반드시 필요한 기능만 넣은 조건으로 가격을 대폭 낮춰 일반 입찰을 진행 중이다. 전자칠판은 지난해까지 구매하던 저가형 단초점 빔프로젝트로 전환했다. 내년에 신설되는 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교실 구축사업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최근 80억원 규모 예산을 신청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 '7.4x7.4mm' 초소형 로터리 덤스위치 등장

## 성문일렉트로닉스 '한국전자전'서 공개 MS·MA·MD시리즈 3종...내구성 높여

스위치 및 LED모듈 전문업체인 성문일렉트로닉스(대표 이강일)가 초소형 로터리 덤스위치(사진)를 개발, 국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성문일렉트로닉스는 최근 7.4x7.4mm 크기 초소형 로터리 덤스위치를 개발,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 '한국전자전(KES 2014)'에 첫 선을 보이는데 이어 이달 말 중국 상하이 전자전시회와 다음달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일렉트로니카에도 잇따라 출품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회사가 개발한 초소형 미니 로터리 덤스위치는 사용 용도와 고객사 요구에 맞춰 디자인 한 MS시리즈와 MA시리즈 및 MD시리즈 3종으로 표면실장(SMD) 타입과 앵글 타입 등 필요에 따

라 제공한다. 10x10mm 크기인 기존 제품 보다 크기를 30% 가까이 줄여 더욱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소형 컨트롤러 제어장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내부구조를 변경해 내구성을 높이고, 접촉 부위에 금도금을 해 접촉 저항도 줄였다. 방수타입이라 습기에도 강하다. 로터리 덤 스위치는 시스템 에어컨과 자동화 설비 제어부분, 조명제어, 태양광전지 설비 제어 부분 등 정밀한 제어가 필요한 기기에 적합한 부품이다. 국내에서는 성문일렉트로닉스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국산화해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미국·유럽·동남아 주요 기업에 공급 중이다. 이강일 성문일렉트로닉스 사장은 "최고의 품질이 최고의 고객보답이라는 사명으로 급변하는 시장에 대처하고 있다"며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관리, 과감한 설비투자와 세계를 지향



하는 가치관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14일 50여 협력 파트너사를 초청해 '2014 인스웨이브시스템즈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 "파트너사와 협업 HTML5 웹표준 시장 주도"

### 인스웨이브, 협력사에 '웹스퀘어5' 소개

HTML5 웹 표준 전문기업 인스웨이브시스템즈(대표 어세용)는 협력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2014 인스웨이브시스템즈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파트너스데이는 인스웨이브시스템즈의 50여 전략적 영업 파트너사를 초청해 웹스퀘어5의 영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제품 소개와 데모, 영업 전략 소개로 진행됐다. 어세용 인스웨이브시스템즈 대표는 "HTML5 웹 표준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보

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웹 표준 UX구축 컨설팅에서 구축·사후 기술지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서비스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며 "파트너사와 긴밀하게 협업해 웹스퀘어5로 관련 시장을 리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스퀘어5의 국내 총판인 신세계아이앤씨도 판매 활성화를 위해 솔루션 판매에서 사후 서비스까지 인스웨이브시스템즈와 함께 파트너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앞으로도 HTML5 웹 표준 분야에서 더욱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파트너사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oo@etnews.com

# 코발트레이, 4K 해상도 지원 안드로이드 메인보드 개발

## '레이킷 블루' 후속...3D 가속 기능 보강

안드로이드 태블릿PC 개발 전문업체인 코발트레이(대표 조정현)는 최근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는 다기능 안드로이드 메인보드 '레이킷 그린·사진'을 개발, 판매에 나섰다. 이 제품은 기존 '레이킷 블루' 후속제품으로 ARM 기반 쿼드코어 CPU를 1.8GHz까지 지원하도록 업그레이드하고, 그래픽 코어를 Mali T764를 사용해 UHD 영상을 끊김 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했다. 3D 가속 기능도 보강했다. 특히 시리얼포트와 USB포트 등을 다량으로 지원하던 기존 제품과 달리 지원 포트는 허브를 이용해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본체 크기를

한손에 들어오는 크기로 줄여 DID 제품에 최적화 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형 베사마운트를 지원, 다양한 모니터에 쉽게 연결할 수도 있다. 코발트레이는 이 제품을 오는 20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월드 IT쇼'에 4K 지원 시스템과 연계해 출품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공급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정현 사장은 "이 제품을 기반으로 인텔 기반 고가 미디어플레이 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솔루션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들이 손쉽게 응용할 수 있는 저렴한 제품과 기술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 포스코·LG도 적용한 웹 정보유출 방지 솔루션

## 소만사, HTTPS 기반 '웹DLP' 출시

소만사(대표 김대환)는 G메일·클라우드 등 HTTPS 기반 웹을 통한 정보유출방지솔루션인 웹DLP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웹DLP를 적용하면 G메일·클라우드 등 HTTPS 기반 웹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할 때 사전에 통제할 수 있고 외부전송 로그를 기록할 수 있다. 또 HTTPS 기반 웹에서 악성코드 배포 페이지를 접속할 때도 기존 미러링 기반 장비로는 할 수 없었던 가시성을 제공한다. 웹DLP는 소만사가 16년 동안 축적한 콘텐츠 분석기술과 대용량 트래픽 처리기술을 결합해서 개발한 솔루션으로 HT

TPS 프록시와 콘텐츠 분석서버로 구성된다. 소만사는 웹DLP를 포스코·LG 등 10여 곳 이상의 대기업에 공급했으며 앞으로 마케팅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최일훈 소만사 연구소장은 "앞으로 시큐어웹(HTTPS) 기반 웹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웹DLP가 DLP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소장은 "소만사 웹DLP는 DLP 전문 패킷 분석엔진을 탑재한 어플라이언스이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개인정보 패턴분석·암호화파일 분석 등 콘텐츠 분석도 외산제품에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이라고 덧붙였다. 주문정기자 mjoo@etnews.com



안재환 아주대 총장(오른쪽)과 김진형 이타스코리아 사장은 자동차SW 인력양성에 협력키로 하는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

## 아주대-이타스코리아 자동차 SW 인력양성 MOU

아주대학교(총장 안재환)는 최근 독일 자동차SW 전문업체 이타스코리아의 국내 지사인 이타스코리아(대표 김진형)와 자동차 소프트웨어(SW)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타스코리아는 아주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전공과목인 '소프트웨어융합 프로젝트'에 자동차 전장장치 SW개발 툴을 제공한다. 아주대는 올해 처음으로 SW융합 프로젝트를 개설했다. 자동차·의료·국방 등 각분야 SW를 학생들이 직접 시장조사해 기획하고 설계, 구현, 테스트하는 전 과정을 수행하도록 한 산학협력 지향 과제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 유라이트, 전력선 조명 디밍제어 기술 특허 취득

미동전자통신(대표 김범수)의 자회사인 유라이트는 조명제어장치 UDC 시리즈 특허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유라이트는 이번에 취득한 특허인 '전력선 기반 조명장치의 디밍 제어 장치' 기술을 적용해 앞으로 공공시설 및 대형시설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 기술은 기존 방식인 유무선 제어 방식, 전압 드롭 방식이 아닌 전력선 활용 전류 제어 방식 디밍 제어 장치다. 탑재한 제품을 고압 방전식(HID) 가로등에 적용하면 전기에너지를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 기술을 LED가로등에 적용하면 전기에너지 소비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스마트 조명 제어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라이트는 특허 취득과 함께 최근 UDC 시리즈 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오는 2016년 4월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며 공공시장에 진출했다. 회사 측은 "유라이트 UDC 시리즈를 전국 가로등에 적용하면 전기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과도한 인공조명에 따른 빛 공해도 방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전국 가로등과 고속도로·지하차도·대형공장·아파트 지하 주차장·공공시설 등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oo@etnews.com

# 제조업이 상품·서비스 융합할 방법은

## 산업부, 내일 '이노베이션 워크숍'

제조기업 경쟁력 증진을 위한 제품-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워크숍이 16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설정보통신협회와 성균관대학교 창의적설계기술연구소와 서비스융합디자인BK사업단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서 제조업의 서비스화 이해와 필요성 및 추진방법과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김용세 성균관대 서비스융합 협동과정 주임 교수(창의적설계기술연구소장)는 '제조업 서비스화란?' '제조업 서비스화 추진 방안'을 주제로 두 차례 강의를 예정이다. 서용원 중앙대 교수와 조창규 알파넷 디자인리서치 대표는 각각 '제조업 서비스화 동향'과 '비즈니스 컨텍스트 진단기반 제조기업 서비스화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홍유석 서울대 교수와 이성태 팀인터페이스 대표는 '서비스 융합 에코시스템'과 '서비스 융합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사례'를 소개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 아드반테스트, 비파괴 방식 반도체 두께 검사장치 출시

아드반테스트(대표 구로에 신이치로)는 반도체 패키지 두께를 측정하는 '칩·몰드 막 두께 검사 시스템 TS9000'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TS9000은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해 비파괴 방식으로 반도체 패키지 두께를 측정하는 장치다. 테라헤르츠파는 세라믹이나 플라스틱을 투과하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지 손상없이 두께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장치는 특히 반도체 디바이스 패키지 봉입한 후 리드프레임에 접합된 상태로 두께를 측정할 수 있어 결함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수월하다. 아드반테스트 관계자는 "TS9000은 자체 개발한 광섬유 레이저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탑재함으로써 업계 최고 수준의 측정 속도와 정밀도를 확보해 반도체 양산 공정에서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장치는 반도체 양산 공정에 필수적인 고속·고정밀 비파괴 분석이 가능해 소형·고집적화되는 반도체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드반테스

트 TS9000을 시작으로 테라헤르츠파 기술을 적용한 장비 개발에 나서 의약품·자동차 등 분야 양산용 분석 장비도 선보일 계획이다. 주문정기자 mjoo@etnews.com

**고객의 마음을 아는 NAS 와이즈기가**

안정성, 보안성, 편의성 "대한민국 1st NAS"

대한민국 네트워크 데이터 스토리지의 표준  
안정성, 보안성, 편의성 "대한민국 1st NAS"

NAVER 와이즈기가

(주)신한정보통신 서울 금천구 가산동 IT미래타워 6층 606호  
TEL : 02-718-7848 | E-mail : ishnhan@shinhan.com